

第26回
(休會中)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3年6月25日(金) 午前9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 城北區建築條例案

審查된案件

- 城北區建築條例案(城北區廳長 再議要求) 1面

(09時25分 開議)

○議事係長 林洛吉 座席을 整頓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26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地域開發委員會가 開議되겠습니다.

開議에 앞서 國旗에대한敬禮를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吉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地域開發委員會 金吉泰委員長입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田熙庠 都市整備局長님 이하 區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第25回 臨時會 非會期 동안 生業에 종사하시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신 우리 地域開發委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行政業務에 전념하시고 노력하시는 가운데도, 이른 아침부터 참석하여 주신 區廳 關係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의 장마는 예년에 비해 길어지고 강수량도 많다고 합니다.

雨期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5月26日, 第25回 臨時會 休會中 開議된 우리 委員會에서 장시간 열띤 討論과 質疑의 소산으로 수정 議決된 城北區 建築條例案이, 地方自治法 第19條 및 同法 施行

令 第37條에 따라, 6月9日 區廳側으로 부터 再議要求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再議要求에 의해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정족수로 의결되는 것을 참고하시어, 그 동안 研究·檢討하신 사항을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區廳에서는 誠意와 責任으로 答辯해주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열두분 委員님이 出席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第26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地域開發委員會 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1. 城北區建築條例案(城北區廳長 再議要求)

(09時29分)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城北區建築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案件에 대한 재의요구 설명을 全熙庠 都市整備局長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本委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주일전에 일어났던 우리 관내의 事項에 대해서, 잠깐 의문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議事進行發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음천철역 地下道 工事を 하다가 하수관

이 터져서 工事が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區廳에서는 新聞과 放送에 交通滯症의 原因을 報道하고, 관내 유력한 人士에게는 길음전철역 交通滯症 原因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기민성을 보여, 地方化時代에 地方政府가 신속하게 사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태의 원인을 住民의 代表機關인 城北區議會에는 오늘까지 일언반구의 書面報告나 口頭報告 조차 받아볼 수 없으니, 참으로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住民의 대표기구가 이렇듯 地方行政의 주변만 돌고있는 現實 앞에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本 委員은 길음 전철역 하수박스 처리과정과 원인에 관계관이 출석하여 報告를 한 후, 오늘 上程된 案件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地域開發委員會의 委員長과 幹事에게도 충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委員長과 幹事인 住民의 대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新聞, 放送이나 관내 유력인사에게는 區廳 幹部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혼란이 왔으니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報告를 했는데, 정작 區民의 代表機構인 議會에는 지금까지 書面報告, 일언반구 말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길음전철역에서 발생한 事故에 대해서 관계관이 나와서 반드시 그 진상을 해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와 진상을 명쾌히 報告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事後措置를 취하고, 동시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報告를 받은 후에 오늘 부의된 案件을 審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區民을 위한 行政府, 區民을 위한 議會의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本委員은 길음전철역

하수박스 사고 처리문제를 관계관이 이 자리에 와서 出席해서 報告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吉泰 예, 감사합니다.

地域開發委員會 委員長職으로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사전에 이런 報告조차 못하고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우리 趙基燦委員님의 發言을 받아 들여서 建設局長님을 建築條例案이 끝나는대로 이 자리에 參席하시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거기에 뒤따른 交通滯症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交通關係는 우리 全熙庠局長님의 所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이 建築條例案 審查하기 전에 한 말씀해주시죠.

○金甲濟委員 建設局長님을 오시라고 해야죠.

○委員長 金吉泰 아니, 交通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밀려 있었어요. 그 원인은 건설국 소관, 하수관계로 일어났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弘報·피알하지 못한 우리 全熙庠局長님에게도 다소의 責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안녕하십니까? 都市整備局長 全熙庠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建築條例案 때문에 많은 委員님께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建築條例案 說明에 앞서서 길음역 하수관 파열로 인한 交通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수관파열로 인한 그 사고 자체는 建設局所管이기 때문에 建設局에서 事故收拾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現場을 못나가봤습니다마는 交通問題는 現場를 주관하고 있는데서 警察局으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交通放送局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放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洞으로 연락을 해서 交通滯症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地域交通課가 도시정비국 所管으로 되어있는데 交通問題는 所管이 아닌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交通問題에 대해서는 警察局 고유업무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택시나 버스, 그 다음에 整備業體, 駐車團束 그것이 저희 業務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여러분, 金濟煉局長님을 출두요구할까요?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本 委員이 質問하기를 本 案件을 審議하기 이전에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지나간 事項을 報告 받고, 그리고 審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선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사태가 야기되었고, 또 新聞社나 放送局, 유력한 인사에게는 친절히 奉仕하며 行政서비스를 했는데, 정작 區民의 代表機關에는 일언반구도 書面報告나 口頭報告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과연 지당한 얘기인가 책임추궁을 한 후에 進行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金吉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建築條例案을 上程하고 있는 마당에 建設局長님을 오시라 해 가지고 사과를 받고하게 되면, 11時에 市民福祉委員會 會議가 이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時間上 여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建築條例案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정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羅光洙委員 趙基燦委員님께서 時間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연락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會議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趙基燦委員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다.

○朴演洙委員 또 區廳에서 오는 時間도 있으니까요.

○委員長 金吉泰 11時에 市民福祉委員會가 예정이 안되어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趙基燦委員 이런저런 구실로 해서 우리委員會의 위상이라든가 의회위상이 손상을 입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명분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여러 委員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이 案件을 처리후에 報告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10時 반경으로 예정을 잡고 金濟煉局長님께 출두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全熙庠 局長님 再議要求 설명을 해주시죠.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먼저 城北區 建築條例를 지난 5月31日, 第25回 臨時會에서 議決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의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審議 때 저희들의 說明이 아무래도 부족한 탓으로 일부 條項에 대해서 재의를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의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說明을 드리면, 條例 第23條1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풍치지구내의 建築物의 建蔽率,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당초안 建蔽率이 30%, 층수는 3層이하에 10m이하, 그렇게 되어있는데 議決된 수정안이 40%에 층수는 4층이하 15m이하로 됐었습니다.

풍치지구내의 建物規模 완화사항은 建物規模라고 그러면 주로 建蔽率과 층수문제, 층수는 용적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계획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基本計劃에 수도권내에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建築物의 規模, 建蔽率과 容積率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原則的으로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치도록 规定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현재로써는 이의 통과여부가 사실상 불투명

한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이미 결정된事項을 번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與件이라든지 장래 상태를 감안하시고, 住民들에게 좀 어려운事項을 괜히 기대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事項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参考로 그동안에 建築條例上의 풍치지구建蔽率 결정과정을 잠깐 說明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내의 建築條例는 75年度에 條例制定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建蔽率이 20%였습니다. 容積率은 60%였고요.

그것이 81年度에 일부 완화가 되었는데 建蔽率은 그대로 20%고 높이는 3층이하 12m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建蔽率과 層數 規模가施行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事項들을 감안해서 委員님들께서 決定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全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宋坪炷 專門委員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宋坪炷 城北區 建築條例案 재의 요구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 끝에 실음)

○委員長 金吉泰 宋坪炷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의 요구된案件인 만큼 再議要求 이유를充分히 檢討하시어 質疑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質疑答辯 方法에 있어서 一括質疑, 一括答辯, 一問一答이 있습니다만 어느 質疑를 選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들 해 주세요.

종전에 하듯이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하시죠.

○鄭昌萬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吉泰 예, 鄭昌萬委員님 말씀하세요.

○鄭昌萬委員 풍치지구에 대해서 建蔽率이나

제한 높이에 대해서 지금 재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城北區에서 首都圈整備委員會 審議한 결과 城北區廳에서 이런 件으로 해서 審議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城北區廳에서는 없었구요. 그 동안에 本廳에서 首都圈 審議는 주로 하구요. 區廳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本廳에 있을 때는 많이 해 봤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安傑瑢委員 말씀하세요.

○安傑瑢委員 安傑瑢委員입니다. 局長님이나 專門委員님께서하신 說明을 잘 들었습니다. 城北區建築條例案 再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서울特別市城北區建築條例 第22條 및 23條 規定은 서울시에서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재심의하여 우리 城北區條例案으로決定할 事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城北區 地域으로써 22條, 23條 規定에 해당되는 地域은, 서울市 어느 區보다도 우리 區가 특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區 貞陵 3洞은 3~40年씩 주거지로 집을 짓고 사는 곳을 풍치지구로 고시하여 피해를 보는 것과 타구의 풍치지구로 되어있는 지역을 완화차원에서 개발, 지금 審議하는 이런 서울市 都市整備 審議委員會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區長님이나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런 차제에 首都圈整備委員會에 再審議를 즉시 요청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城北建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區만이라도 現 條例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本委員이 왜 피력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城北區의 貞陵 3洞은 서울市 어느 特定 地域보다도 특이하게 더 다르다, 다른 他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條例範圍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특이한 상례를 들어서라도 우리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建築條例案에 대한 再審을 要請해서 條例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吉泰 또 다른 委員님 안계십니까?

예, 羅光洙委員님 말씀하세요.

○羅光洙委員 풍치지구를 가지고 자꾸 建設部나 서울市에 의존하여 맨날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상위법이나 市議會에만 의존하지 말고, 都市計劃이 잘되어 있는 江南이나 어디나 다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는 建設部令이나 市條例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차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貞陵3洞같은 地區는 약 90% 이상 城北區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낙후된 建物을 뜯어내고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해서 建設部令만 가지고 우리 城北區 가장 어려운 地域을 묵살시키고,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관계, 全局長께서는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법에만 의존 할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통과했던 그 法에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附則 條項을 한두개 더 넣어서라도 이 완화한 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案을 강력하게 서울市나 建設部에 전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安傑瑢委員님께서 質問을 해 주셨는데요.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都市計劃上 都市の 자연 풍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都市計劃으로 특별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목적상 풍치지구는 주거전용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또는 商業地域과 다르게 최소한의 建築만 許容을 해 주고 있습니다.

都市計劃上의 지구지정 목적때문에 그런 것이지 建築 規制를 목적으로 해서 建築基準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풍치지구에서 建蔽率이 規模를 缓和시키는 그런 차원보다는 都市計劃의 檢討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首都圈 整備計劃 基本計劃法은 저희들이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首都圈內에서 인구 집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事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都市基本計劃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金甲濟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甲濟委員 우리가 처음으로 建設部 指針에 의해서 8章54條의 建築條例案을 審議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가, 이것이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는 地方化時代에 맞게 또는 地域特性에 맞게 우리意思를 한번 表示하자는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法에도 경과규정이 있는가하면 단서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도 단 그러하지 아니하다든지 이렇게 단서규정도 있고 경과규정도 있다고 할때에 이왕지사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전혀 모르지 않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 城北區 地域에서는 地域特性에 꼭 이렇게 되어야겠다해서 우리委員님들이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原案대로 다시 審議한다는 것은 議會 위상도 그렇고, 우리 議員들의 위상도 있으니까, 단서규정을 둔다든지 경과 규정을 두어서 行政에 지장이 없고 住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方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都市整備局長님의 意見을 묻고싶습니다.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地域特性을 감안해서 委員님들이 決定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의 설명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都市計劃次元에서 檢討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個人 생각이 들고요, 委員님들께서 決定을 해 주신것에 따르겠습니다.

附則을 넣어서 해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甲濟委員 가능하죠?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예.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예,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저희 委員會에서 지난번에 建築條例 22條, 23條를 審議를 할 적에 상위 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審議를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위법에는 그렇다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지역이 낙후되어 이 地域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어떤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컸기 때문에, 저희는 地域이기주의라든가 어떤 地域, 特定地域을 보호하기 위한側面에서 시정 재의를 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알기로는 隣近 區,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公園綠地나 풍치지역도 再開發地域으로 지정이 되면은 완전히 해제를 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區廳에서도 이 地域이 首都圈整備審議委員會에 저촉이 된다 손치더라도 地域의 歷史性과 연고성과 또 현실적으로 이 地域은 풍치지구를 해제해도 國土의 綜合的 管理라든가, 이런側面에 크게抵觸이 안된다라고 생각되면自治團體에서 능동적으로 이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노력들이 地方自治團體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인 誠意가 없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委員會의 의지로 이 地域의 발전이라든가, 수십년동안 財產上被害를 본 住民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의지로서改正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렇게改正하는데 대해서 잘못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地域에 사는 住民, 나아가서 城北區 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區도 다른 附則을 넣어 가지고, 우리 의지도 살리고 나아가서 行政業務를 수행하는데서 지장이 없도록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金甲濟委員 局長님도 附則을 넣으면 이상 없다니까 그렇게 하지요.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質疑 時間に 修正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質疑가 없으면

討論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安傑瑢委員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네, 말씀하세요.

○安傑瑢委員 이 事項을 우리 區의 地域特性을 감안해서 首都圈整備審議委員會에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附則을 넣게 되면 다시 要請해야 됩니다.

○安傑瑢委員 그러니까 재심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가 附則을 신설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예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質疑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보완을」「잠깐만」하는 이 있음)

討論 때 말씀하세요. 質疑 時間이니까, 討論해서 修正案을 내시든가 해야지…

○鄭昌萬委員 補充質疑 좀 할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吉泰 예, 말씀하세요.

○鄭昌萬委員 왜냐면 審議委員會에 가면 그 공백속에서 住民들이 建築을 할 때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審議를 지금 넣었다면 그 공백이 있을 거 아니예요. 審議과정 속에서 住民들이 建築을 했었을 경우에,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附則에다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質疑 없으시죠? 그러면 討論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金甲濟委員님.

○金甲濟委員 여러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質疑를 해서, 우리 局長님의 答辯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칙을 만들면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附則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해서 빨리 審議 통과시키죠.

○委員長 金吉泰 金甲濟委員님의 再請 없으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再請이 있었습니다.

○趙基燦委員 本 委員은 이 會議席上에서 실질적으로 풍치지구를 존속함으로 해서 綠地를 관리한다든가, 그린벨트에 속해있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큰 효과도 없으

면서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발전이라
든가, 손해가 되는 이런 예는 과감히 해제
建議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풍치지구의 해제에 대해서自治團
體에서建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
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우리 金甲濟委員님
의 말씀이 조금 모호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修正案대로 하되 서
울市 종전의 建築條例案을 적용한다고 하
는 부칙條項을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죠?

○金甲濟委員 그렇죠. 行政的으로도 불편이
없고, 또 쉽게 얘기해서 建築民願도 발생하
지 않는 부칙을 신설하면 지장이 없다, 그
러잖아요.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金甲濟委員님의 發
言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千福成委員 金甲濟委員님의 말씀에 同意를
하면서, 附則 第5項에 建蔽率과 建築높이에
대한 적용의 條例, 第22條, 第23條 規定에
의한 建蔽率 및 建築 높이를 首都圈整備
計劃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
審議委員會 審議를 거쳐 區廳長이 공고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러한
附則 條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그것은 修正動議案이죠?

○千福成委員 네.

○羅光洙委員 그러면 附則 條項, 즉 말하자
면 附則 内容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
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羅光洙委員 그게 내용입니까?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吉泰 제가 간략하게 千委員님
말씀을 줄이면, 종전 서울市建築條例를 적용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의요구 이유서
附則 條項에, 풍치지구 안의 建蔽率 및 높이
에 대한 경과조치, 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
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建築物의 建蔽率과
높이는 首都圈整備計劃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區廳長이 공고할 때까지 종전의 서울特別市
建築條例를 적용한다, 이렇게 修正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參考하시
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거기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받아”를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요.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그러면 區廳關係官하
고 協議를 해 가지고 문액을 만들 때까지, 한
5分間 停會를 해서 다시 檢討하는게 어떻
겠습니까?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저희들이 문액을 만
들어 왔습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방금 委員長님께서 읽은
것하고 똑같은 내용에 문액 하나만 들어갔
습니다.

“附則 5, 풍치지구안의 建蔽率 및 높이에
대한 경과조치, 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建築物의 建蔽率과 높이는
首都圈整備計劃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部
長官의 승인을 받아 區廳長이 공고할 때까
지 종전 서울特別市建築條例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建設部長官 승인을 받아”가 삽입
된 것입니다.

(「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
했으리라 믿고, 우리 千福成委員님의 수정동
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하시죠?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
므로, 여러분들 異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局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11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金吉泰	千福成	朴演洙
李萬載	金甲濟	羅光洙
李鍊炯	安傑瑢	趙基燦
閔應說	鄭昌萬	崔桂洛

○缺席委員

金德守

○參席議員

金榮植 黃義揮

○參席専門委員

専門委員 宋坪炷

○參席公務員

都市整備局長 全熙庠
建築課長 朴隆聖
